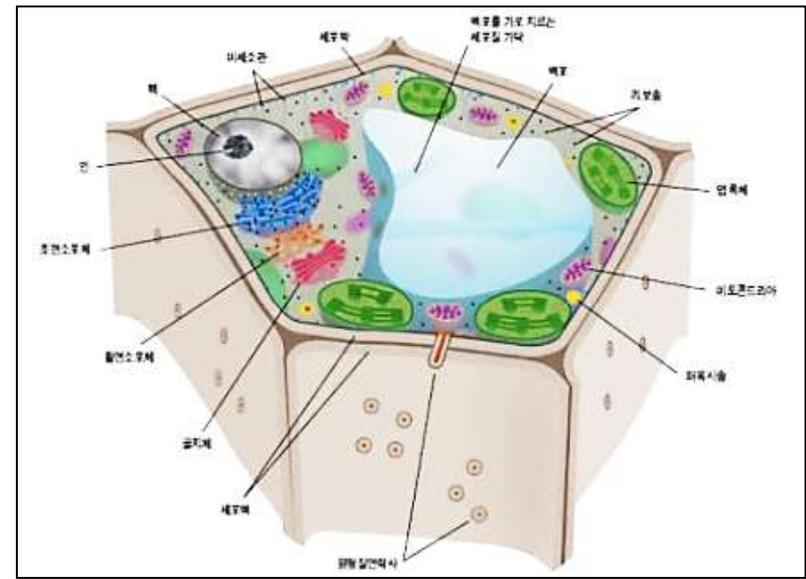


11) 아연(Zn)

엽록소 형성, 단백질, 탄수화물의 합성 대사에 관여한다. 생리대사 작용의 촉매와 반응 조절 물질로 작용한다.



결핍하면

황백화, 괴저, 조기 낙엽이 일어나며, 감귤류에서는 잎반점 증상, 소엽 증상, 결실 불량이 나타난다. 망간과 철과 같이 중성~알칼리 토양에서 흡수가 나쁘므로 유안 (황산암모늄($(\text{NH}_4)_2\text{SO}_4$), 염화加里 (potassium chloride, 염화칼슘) 등 산성비료를 사용한다. 유기물 (퇴구비, 생짚, 낙엽 등) 을 다량 사용하면 아연의 결핍을 예방할 수 있다.

아연은 결핍 증상 보다 과잉 장애가 많이 발생하므로 토양 양분 처방 지침에 따르도록 한다.

과잉장애는 엽맥사이 황화, 신엽에서 중엽으로 진전, 잎이 작아진다.

아연(Zn) 결핍 장애

토마토



오이



아연(Zn) 결핍 장애

마늘



양파



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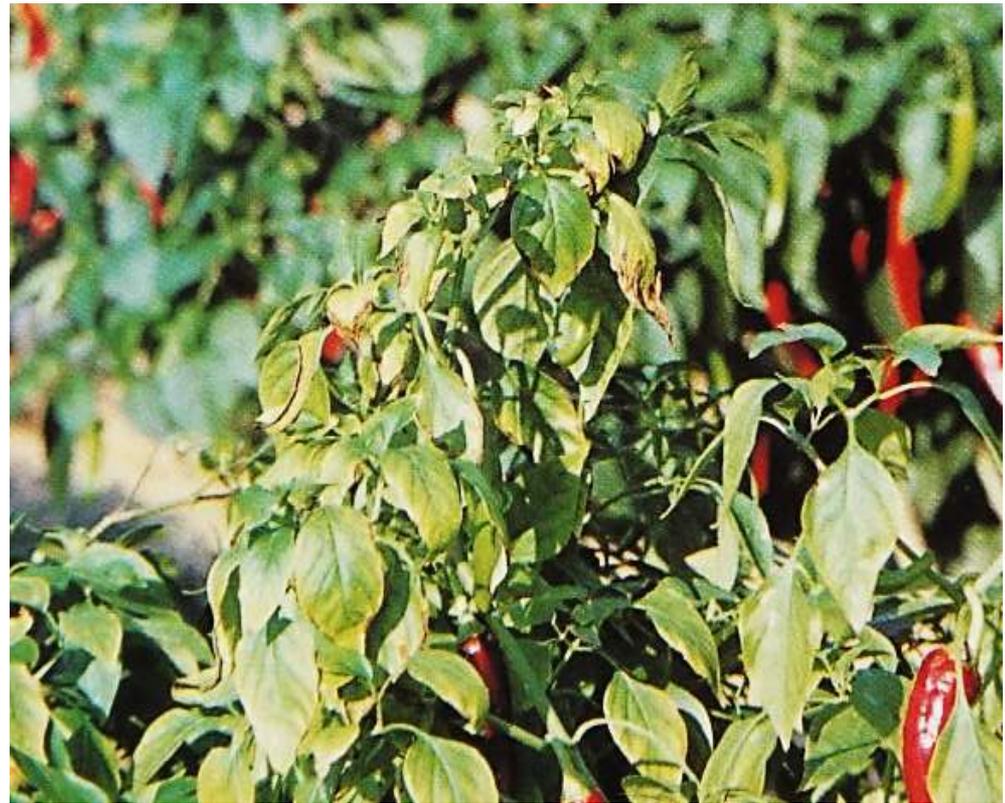


고추



고추 ?
생장이 느리고 잎이 작고
앞자루도 짧고 앞색이
옅어진다.

아연(Zn) 과잉 장애



아연(Zn) 과잉 장애

수박



고구마



HO

